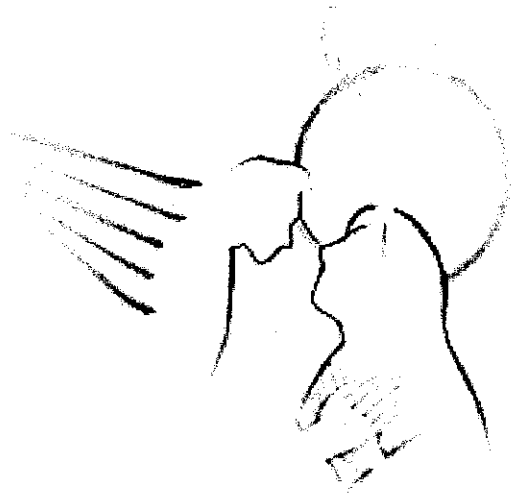


# 한마음 주보

Hanmaum (one-in-Christ) Korean Catholic Church  
 4812 W,Napoleon Ave. Metairie LA 70001  
 본당신부 : 박준혁 프란체스코 (504)888.2366/782.4474  
 총무: 송명훈 요셉 (504)368.0362/236.4202  
 성당 : (504) 888.8772 E-mail : franco4369@hanmail.net  
 Web page : www.geocities.com/hanmaumcatholic

## ✝ 나누는 기쁨 ✝

<p style="text-align: center;">준비하신</p> <p>우리를 고단한 잠에서 깨워 일으켜</p> <p>새날엔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려고</p> <p>머리맡에 생수(生水)처럼 준비하신</p> <p style="text-align: center;">당신의 뜻을</p> <p>비로소 어머니를 통해 만났습니다.</p>	
<p><b>한광구 요셉·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화가</b></p>	

## ✝ 오늘 의 미 사 ✝

- |        |                                            |
|--------|--------------------------------------------|
|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7,10-14                       |
| 화답송    | ◎ 주님께서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영광의 임금이시로다.             |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1-7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        | ○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        | ◎ 알렐루야                                     |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8-24                 |
| 영성체송   |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 내년부터 우리 모두 '영감님'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얼마 전만 해도 판검사를 '영감님' 이라 불렀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이지긋한 노인이 젊은 판사에게 영감님이라며 술잔을 올리는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왜 판검사를 영감님이라 부를까요? 영국에서는 재판할 때 판사가 하얀 가발을 씁니다. 하얀 가발은 즉, 온갖 인생 역정을 헤쳐 온 영감님의 상징이 아닐까요?

새해 1월1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이라는 이름의 배심재판이 시작됩니다. 외국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화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유죄 무죄의 평결을 내리고,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합니다. 우리 모두 '영감님' 이 되는 겁니다.

배심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선진국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2009년부터 재판원이라는 배심제도를 시작합니다. 사실 일본은 1928년 배심제를 시행했다가 전쟁이 절정에 달한 1943년에 정지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는 겁니다.

과거 우리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협력자로 국민에게 상처를 안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변모했지만, 아직도 국민에게 법원은 그들만의 기관일 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입법에 개입하고 대통령과 자치 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에 참여하지만, 사법에는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심제도는 사법의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배심제도가 도입된다는 사실을 거의가 모릅니다.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류 샐러리맨이 잘나가는 친구에게 애인을 빼앗기고 화가 나 등 뒤에서 과도로 찌릅니다. 살인 미수를 주장하는 검사와 상해를 주장하는 변호사 사이에서, 판사와 함께 결론을 찾아가는 배심원들의 모습. 우리보다 1년 늦게 도입하는 일본 대법원 홈페이지의 홍보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최근 TV 광고가 나옵니다만, 출범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웬 호들갑입니까? 광고가 아니라 배심제도를 제대로 알리는 '홍보' 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는 법률 해석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서는 법률가보다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는 시민이 더 우월하며, 배심제도의 매력은 바로 이점에 있습니다. 물론 배심재판에 대해서는 인민재판의 가능성부터 국민의 자질부족 등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수준이 외국 사람보다 낮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감님' 으로 참여할 배심재판, 함께 가꿔야 할 우리의 재판입니다.

## 나를 아름답게 하는 기도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도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에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 **우리들의 정성** ◀

날 짜	봉헌금	2차헌금	교무금	합계
12월 16일	348불	286불	900불	1,534불
날 짜	미사 참석		명성체	
12월 16일	46명		31명	

▶ **전례 봉사자** ◀

구 분	미사 해설	독 서	복 사
이번 주일	성 필립보	송명훈 요셉 송봉란 엘리사벳	김동일 파비아노 윤상현 토마스
12월 24일	송 엘리사벳	김재홍 노엘 김동순 프란체스카	모든 복사
12월 30일	김 노엘	윤상진 스테파노 윤혜숙 유스티나	하재성 다니엘 김동일 파비아노

**공지사항**

1. 오늘까지 대림 판공 문제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미사 후 복사들 연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4일 미사에 모든 복사들이 함께 할 예정이오니, 24일 8시까지 복사들이 성당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3. 12월 24일 성탄 대축일 미사는 8시 30분입니다. 영세식은 미사 중에 있겠고, 미사가 끝난 후 성모회에서 준비한 식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벼운 퀴즈를 푸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있으니 가지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25일 미사는 없습니다.
4. 12월 24일 미사 시작과 함께 구유 경배 예절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또한 구유 경배 예물도 있으니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12월 30일)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그날 만큼은 가족들이 함께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6. 12월 25일 홈리스들을 돕기 위한 봉사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관심있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시간은 11시 30분에 성당에 모여 출발할 것이고, 12시에서 2시까지가 저희 봉사시간입니다. 자세한 것은 레지오 단원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 12월 31일 송년미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8시 30분 전에 성당에 도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시 30분부터 마을대향 웃돌이가 있습니다. 그 후에 11시에 미사가 시작됩니다. 이 미사는 송년미사 겸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떡국 잔치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신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1월 1일 미사는 없습니다.
8. 항보 위 신부님께서 본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 본당 주소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혹시 2007년 주소록에 잘못 기재된 것이나, 누락되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